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 특성

김 향 은[†]
(고신대학교)

Teachers'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Students Positively

Hyang-Eun KIM[†]
(Kosin University)

Abstract

Based on adolescents' perspective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eachers that influence students to positively change in areas such as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their potential. Essays focusing on memories of twenty seven significant teachers written by eighteen adolescents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in Daegu, Korea in 2011 were used for analyzing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m to positively change. Subsequently, five critical factors were identified: warmth and acceptance; encouragement and support;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respect and care; modeling and expectation. The adolescents perceived that those factors not only contributed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but also enabled them to positively change and achieve more in life. Moreover,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cusing on teachers' productive function and healing power were discussed. The role of teachers in reinforcing and building the character student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holistic development was dealt with. Finally, the reference for promotion of further studies of the research field was made.

Key words : Teacher, Student, Adolescent, Characteristics, Education

I. 문제의 제기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강한 환경은 청소년의 성장에 유익하나 건강하지 못한 환경은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기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증가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

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Chun, et al., 2011).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¹⁾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청소년 거의 모두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1) 본 연구에서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는 만 13-18세의 연령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011-889-9237, hekim@kosin.ac.kr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청소년들에 있어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장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학교가 학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전수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육성하게 할 책임이 있는 주요 환경으로 학교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Hong & Nam, 2007).

근래에 와서 학교가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 기능이나 교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는 곧 사회화의 대표 기관으로,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사회적인 존재로 성숙해져가고 장차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길러가게 된다. 요컨대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을 통해 학생들을 사회화한다.

첫째는 직접 교수로, 학교는 직접적 가르침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전수할 지식과 가치, 행동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둘째는 보상과 처벌로, 학교는 보상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특성을 강화하고 처벌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화를 유도한다. 셋째는 사회적인 관계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교제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구성원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집단 역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고 관계적 문제를 다루는 기술과 태도 등을 습득하게 된다. 넷째는 본보기 인물이 되는 역할 모델의 제시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 인물들의 특질을 모방하고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화되어 간다(Kim, et al., 2001).

이상과 같은 학교의 주된 사회화에 중핵적인 공통분모가 되는 요인 또는 인물이 바로 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직접적인 교수를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이나 격려 등과 같은 보상 기제를 통해 강화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특성은 처벌을 통해 재제하는 지도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질적 양상의 사제관계나 교우관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인간관계의 국면을 경험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며 보고 듣는 교사의 전인격적인 모습은 부지불식간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역할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러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기초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교사의 바람직한 자질과 역량에 주목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사 자신이나 학부모, 교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돼 왔으며,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을 전문적 지식, 학생지도력, 행정업무 능력, 정의적-태도적 역량 등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Chang & Chang, 2001, Ju, 2009; Kang, et al., 2006; Sung, et al., 2009).

교사가 학생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요구하고, 의사소통의 교류를 통하여 일어나며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일련의 규칙을 갖게 되고, 진공 상태가 아닌 특정 물리적·사회적 조건에서 일어나므로 제반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환류 과정을 통하여 호혜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은 측정될 수 있다(Kim, 1991).

한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상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효과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교사의 지각에 의해 학생에게 전달된다. 교사에게 호의적으로 지각된 학생은 친밀한 사제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크데, 이와 같은 상호관계의 설정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은 물론 학급 전체 분위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가운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에 중점을 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를 ‘평가자’로,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운 교육적 구도 안에서 학생의 관점에서 교사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학생 지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사의 수업 행동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이 교사의 수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Nash(1976)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지각은 결과적으로 일련의 규범적 신념에 대한 관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풀이한다. 이렇게 볼 때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연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 교사의 영향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에 관심을 갖고 보다 깊이 있게 다뤄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역동적인 교육의 요소로서 교사의 인격적 특성에 대한 학생의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쌍방향 관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에 초점을 학생들의 진술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사의 인격적인 특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인격적 특질을 교사와 학생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장면을 통해 찾아봄으로써,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발하는 교사의 인격적 자질이 학생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소외, 폭력, 부적응, 절망의 산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건강한 인적·사회적·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희망적 교육매체로 작용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 함양을 촉구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통해 평가된 교사의 영향과 효과에 주목해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에 이들의 인격적 성장이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교사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쓴 수기를 연구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Shin, et al., 2004).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된 사제간 미담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Daegu Metropolitan City, 2011).²⁾

2) 총 27명의 교사에 대한 회고가 총 18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18편의 수기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은 비구조화된 응답 내용을 특정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재해석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방법으로(Weber, 1990), 본 연구의 관심사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인 특성을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우선 분석대상 자료의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각 수기의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독하면서 교사의 어떤 특성을 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인물로 기억하고 지목하게 되었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진술하고 있는 과거 교사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에게 유의미한 경험으로 회상하고 있는 교사의 특성을 묘사하는 부분에 나오는 주 단어와 문장을 찾아 내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단어나 문장들 가운데 공통적인 내용이나 의미, 주제별로 묶을 수 있는 범주가 있는지 검토해 범주별로 교사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차 범주화 또는 유형화의 과정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교사의 정서적·행동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을 청소년 전문가 3인에게 보여주고 이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특성을 취합해 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주제에 따라 묶고 그 주제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주관성이 작용할 수 있는 해석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일차적 범주화와 일치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영향력 있는 교사의 특성으로 유형화된 다섯 가지 범주별로 교사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교사의 제반 특성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유관적인 상호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수기 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교사의 인격적인 특성은 다섯 덕목, 즉 1) 온정과 수용, 2) 격려와 지지, 3) 대화와 소통, 4) 존중과 배려, 5) 모범과 비전 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글을 통해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³⁾

1. 온정과 수용

청소년들이 지금껏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사의 특성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교사의 인성이었다. 학생들의 글을 통해 발견되는 교사들의 이러한 인격 특성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생님은 목소리도 부드럽게 들렸고, 무엇보다 웃기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2>⁴⁾

힘들고 지쳤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었기에** 중학교 1학년 때 가끔 통화를 하기도 했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께서는 귀찮으실 법도 한데 **어머니처럼 투정도 받아주시고**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그 덕분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중학교 1학년 생활을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4>

유독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 날 그 아

3) 본문에 인용한 글은 문법적 오류가 있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였다.

4) 각 인용문의 후미에 제시된 번호는 본 연구에 분석 자료로 사용된 수기의 일련 번호다.

이의 말을 듣고 수업시간 도중에 울면서 복도로 뛰어나간 적이 있었다. ... 쉬는 시간, 선생님은 조용히 나를 불러서 그간 사정들을 들으시고는 그 아이를 불렀다. 원래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혼내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곤란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물음**을 던질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제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게 사과를 하여, 다음부터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 날 이후로 **선생님께 더 편하게 다가가거나 힘든 일에 대해 의논할 수** 있었고, 선생님 또한 내게 관심을 기울이셨다. ... ○ 선생님은 힘들었던 시기의 나를 현명한 방법으로 구원해주신 분이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선생님이다. <5>

○ 선생님은 유난히 **엄마처럼 편안한 분위기였던 선생님**으로 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다. ... 학생과 **멀지 않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사이의 사제시간**이 참 좋게 느껴졌다. ...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 이 선생님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의논할 일이 있을 때도 부담을 덜 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7>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생님께서는 저를 찾아다니시면서 또 밤을 새우셨죠. 그 다음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늦게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는 저의 부모님들이 와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엄마를 본 저도 울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빠께서도 주먹을 꼭 쥐고 계셨어요. 제 부모님과 선생님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괜찮다.”** 라고만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그 때 정말로 죄송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 선생님은 제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 선생님은 제게 **무척 편하게 다가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나의 고민들을 일기나 인형같이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에게 말고 나와 눈 마주치며 대답해 줄 수 있으신 분, 선생님께 말해 보았어요. <10>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 마치 **친구처럼 다정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엄한 표정과 말투가 아닌 **친절과 다정함**으로 나를 대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나는 금세 영어와 친해졌고, 성적도 그런대로 잘 받을 수 있었다. ...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서 어린 나를 발견하고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 나는 늘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학생들을 칭찬으로서 일으키시는 선생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겠지만 선생님은 나에게 특별한 한 분이시다. 앞으로도 그 분을 존경하며 내 삶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11>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있었다. 그런 내게 **가족 대신 안아주시고** 이야기 해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던 분이 ○ 선생님이시다. ... 선생님은 엄격하고 무섭기 보다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반 학생 모두를 한 번씩 포옹해 주셨는데** ... 이렇듯 항상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들어주고 지켜봐주셨던** 선생님이셨다. <12>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로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 때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 16일 학교를 조금 늦게 나왔다. 선생님은 아침자습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교실 복도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셨다. 마치 누군가가 오지 않아 불안한 사람처럼 선생님 앞에 조용히 다가갈까만 나는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은 갑자기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흔을 내시는 것 보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셨다.** 그리고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였을까 가슴이 뜨겁고 목이 메고 말이 나오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냥 얼굴을 두 손에 묻고 서럽게 울고 있는 나를 **가슴으로 끌어당겨 안아주셨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손길로 작은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18>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교사들의 부드러운 말투와 미소, 편안한 분위기, 친절하고 자상하며 다정한 마음,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따스한 마음이 전해지는 접촉 등을 경험한 바 있는 학생들이 교사를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교사의 따뜻하고 편안한 인격적인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정서적 거리감을 좁혀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학생들이 그들을 향한 교사의 온정적이고 수용적 태도, 학생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하는 너그

리움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보다 가까워진 관계 속에서 학생들은 그만큼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좋은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의 방향을 다룬 선행연구(Ghang, 2012) 역시 교사의 과제가 수업을 잘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좋은 교사는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인식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좋은 교사의 자질로 동정과 공감을 지목하고 이러한 덕목이 결핍된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을 가르칠 때 겪게 되는 육체적·정신적 희생을 견뎌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질의 함양에 초점을 맞춘 교사 양성과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적인 자질로 분석된 온정과 수용이라는 덕목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라 하겠다.

2. 격려와 지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교사의 또 다른 주요 인격적 자질 가운데 하나는 칭찬과 격려, 기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원처와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술하고 있는 격려자·지지자로서의 교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선생님들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

면 **칭찬에 대한 욕구를 심어 주셔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하셨고** 수업에 집중하게 된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 그때의 나는 추억을 연주하고 있다. <1>

내가 **조금만 잘해도 선생님은 급격히 칭찬해 주셨어요.** <2>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기운이 느껴지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3>

선생님께서 나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 땐 수학을 잘하지 못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의 **기대를 저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4>

가장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지금의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큰 힘이 되어주신** ○ 선생님. … ○ 선생님은 **힘들었던 시기의 나를 현명한 방법으로 구원해주신** 분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선생님이다. <5>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되기도 한다. 그렇다. **나에게 항상 기대감을 안겨주시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선생님이 바로 나의 '○ 선생님' 이었다. <6>

낯선 환경에서 서서히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 내가 학교라는 곳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이었다. …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선생님을 나는 정말 잊지 못한다. … 하루는 일기를 쓰는데 선생님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처음 쓴 이야기를 그렇게 **찬사를 받아서 자신감이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 선생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셔서** 나는 그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할 용기를 갖게 해주신** 것이다. …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의 내면을 한층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복돋아주시는** 선생님 … 원래 선생님이란 존재는 **학생의 기를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일까. 늘 그러셨다. 나의 **자신감을 키워 주셨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에 별 두려움도 없었다. …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 **격려를 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선생님의 격려와 함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기르게 되었다. … 나의 **자신감을 먼저 키워주시고,** 그 다음 나의 재능을 발견해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 선생님께서는 내 꿈을 잊지 않고

응원을 해주시곤 했다. 아마 이 선생님 덕분에 나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꿈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나 싶다. ...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선생님이 이끌어주신 덕분에** 앞에서 말했듯이 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살자**’를 내 좌우명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7>

선생님께 혼나고 맞는 것 보다는 선생님께 자꾸 실망을 드리니까 그게 더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 실망시키지 말자는 마음이 들어요. <8>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나에게 절대적이었다. 수없이 ‘살고 싶지 않다’는 어린 마음에 나쁜 생각까지도 선생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알림장에 **용기를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다. ...내가 한참 말이 없으면 ‘**요즘은 어때나?**’라고 던지시 먼저 물어보시기도 했다. 그럴 때 마다 **선생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는 내말에 동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다. ... 나쁜 생각까지도 선생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알림장에 **용기를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다. <9>

처음에 저는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서 많이 울기도 했었구요. 그 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 그 때마다 빼먹지 않으신 선생님의 말씀 **“넌 할 수 있다.”**였어요. 지금의 긍정적인 성격에 저는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10>

선생님은 그 때마다 **칭찬과 격려로써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 어떤 돌부리가 박혀있을지 모르는 험한 길 위라 할지라도 **선생님이 곁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11>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반 학생 모두를 한 번씩 포옹해 주셨는데 그때 작게 내 귀에 “**인희야, 아버지는 돌아오셨니? 힘내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다. ... 이렇듯 항상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들어주고 지켜봐주셨던** 선생님이셨다. <12>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 선생님 ... 저의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힘드신데 제가 좀 더 친구들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마음써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선생님이 저한테 배려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학교생활이었지만 **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선생님이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 선생님은 정말 제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 제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때 그 자리에 **내 편으로 든든히 계셨던** 선생님 덕분이란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저같은 친구가 있으면 언제나 그 **편이 되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자리는 저 같은 아이에게는 **용기를 주고** 뼈뺏하게 나가는 친구들은 바른 길로 이끌며 함께 아파하는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13>

선생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우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지휘하시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시며 **용기를 주셨던 모습.** 다함께 힘을 내었어요. ... 들직한 단장이라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무엇이든 말해 봐. 선생님은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기댈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람은 말이야 혼자의 힘으로 버텨야 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기댈 줄도 알아야 돼.” 정말 나에게 기억에 남는 말이다. ... 이 말만은 이해하고 **힘이 된 말**이었다.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셨다.**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셔서인가 정말 신기하게도 그 동안의 설움이 싸악 잊혀지고 나는 울음을 멈추었다. ... “세상에 너를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고 그 사람이 주위에서 널 감싸주고 있다면 **넌 괜찮아. 넌 사랑받는 아이인거야.** ... **넌 행복할 수 있어.** ... **조금만 버티자.** 넌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금만 조금 힘들고 아플 거야. 선생님은 아니 김○○은 수현이, 문수현을 믿어.” <18>

위의 진술을 통해 교사가 학생이 보이는 아주 작은 성취나 진보의 모습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이를 주목해 드러내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써 선순환의 연쇄적 반응을 보이는 고무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서

한편이 되어 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학생들은 그들 곁에서 자신을 믿어주고 성원해주며 굳건한 피난처·의지처·지원처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음을 인식해 문제 해결과, 위기 극복의 결정적 기회를 얻고 순조로운 적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Ghang, 2012)에서도 교사들에게 요청되는 바람직한 자질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이끌어 나갈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교사 자신의 건전한 자아존중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유효한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아 발달 또는 자아 강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향력 있는 교사의 인격적인 특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3. 대화와 소통

청소년들이 과거와 현재 자신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교사의 특성으로 언급하는 인격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경청자, 학생의 말을 마음으로 들어주는 공감자, 학생과 개방적·호혜적으로 대화하는 쌍방적 의사소통자, 결정적인 시기에 학생들에게 유효적절한 도움말을 제공해주는 조언자 또는 상담자로서의 자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수기를 통하여 상세하게 조명되고 있는 이와 같은 교사의 인격적 특성과 자질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에겐 큰 위기가 다가 왔었다. ... 그래서 선생

님께 조언을 듣기로 결심했다. ... 선생님께서는 **정성껏 답변해주셨다. ...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그 덕분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중학교 1학년 생활을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4>

어느 날 수업시간이 앞당겨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난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고 말았다. ... 급한 마음에 문자로 선생님께 사정을 전했다. 선생님의 답은 교무실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고 있으라는 것뿐이었다. ... 선생님은 나를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 그 곳에서 선생님은 **늦게 온 이유를 차근차근 들어주셨고, 화난 이유를 말해주셨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 주셨다. ... 선생님께 더 편하게 다가갈 **어렵거나 힘든 일에 대해 의논할 수 있었고 ...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털어놓을 정도로** 선생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셨다. ... 한 날 부모님과 크게 다툰 일이 있어 울다가 잠든 적이 있었다. 다음날 수업시간 문제를 풀러 칠판에 나온 내 얼굴을 보더니 울었으며 걱정을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속상한 일, 슬픈 일들을 먼저 알아채시고는 **기분을 풀어주려고 대화를 청해주셨다.** 항상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다. <5>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선생님께 누구보다 배우는 것이 많아졌다. <6>

그리고 일기장에 내 생활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대해 주셨다.** 종종 **선생님과 일기장으로 대화도** 하고, 구석에 적혀 있는 선생님의 유머를 보면서 하루하루 일기 쓰는 재미에 푹 빠져 혼자서 웃곤 했다. ... 나는 **의논할 일이 있을 때도 부담을 덜 가지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7>

집에서 그 날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 선생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3줄 이상 또는 5문장 이상으로 써서 다음날 아침에 내야했다. 선생님께서는 알림장을 거두어 가셔서 내용에 대한 **댓글을 써주셨다.** ... 알림장은 42명의 학급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과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문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 점점 알림장을 쓰면 쓸수록 선생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자 조금 더 깊은 내용, 어쩌면 숨기고 싶은 민감한 내용도 알림장에서 다루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알림장을 통해 하나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나의 경우엔 **선생님과의 대화**가 특히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진** 계기가 있었다.

... 그 이야기를 알림장에 썼던 나는 선생님과의 첫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한참을 교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울었고, 선생님께서는 부모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있을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주셨다. **조언이 감사했던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내 마음을 터놓고 모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선생님에게 말하고** ...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알림장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도 내가 쓴 양보다 더 많이 반쪽 가득히 댓글을 써주시기도 하고, **방과 후에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내가 한참 말이 없으면 **‘요즘은 어떠냐?’** 라고 던지시 먼저 물어보시기도 했다. 그럴 때 마다 선생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선생님께서서는 내말에 동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셨다.** ... 나쁜 생각까지도 선생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알림장에 용기를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셨다. <9>

선생님께서서는 정말로 **자신의 일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들도 정말 잘 해주셨어요.** 실제로 저는 그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고** 중학교 생활에 적응도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 그 날도 선생님은 **제게 따뜻한 말들을 해주셨어요.** <10>

중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의미로서 나를 울게 한 분이 계셨다. ... 한번은 자리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항상 맨 앞자리에 앉던 나를 선생님께서 맨 뒷자리로 보내셨다. **‘선생님은 왜 나만 미워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선생님을 미워했다. ...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자 알 것 같았다.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다.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초연히 있는 것이 더 나를 때가 있는 법이라는 것과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일러주셨다.** 나는 그제야 어린아이 같았던 나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었다. ... 중학교 때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 않았을까? 선생님의 **엄한 꾸지람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 ... 위축되어 되어 있던 내게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낌없이 쏟아주셔서**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선생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았다.** 그러자 선생님이 퇴근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

이다. ... 그 누구도 내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선생님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혼자 울었다. 여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일이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1>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못 찾고 있었다. 그런 내게 가족 대신 안아주시고 **이야기 해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던 분이 선생님**이시다. ... 항상 웃지 않고 부정적이고 소심했던 내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많은 교감과 활동을 통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지금의 씩씩한 학생으로 자라게 되었다. <12>

선생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 ... 세월이 흘러도 함께 아파하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지낸다면 우린 **언제나 마음이 통하는 스승과 제자가 될 것** 같습니다. <13>

가슴 한켠에 영원함으로 기억될 선생님이 있다는 이 행복은 내가 ○ 선생님께, 그리고 ○ **선생님께서 내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14>

선생님, **선생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 충고, 조언들은 거름삼아** 2031년 2월 16일에는 큰 나무로 자라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15>

아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는데, 특히 우리 반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많았고, 결손가정인 아이들도 많았었다.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 30분씩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신**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학교 3학년이지만, 친구들의 말에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16>

선생님은 갑자기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흔을 내시는 것 보다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셨다.** 그리고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였을까 가슴이 뜨겁고 목이 메고 말이 나오지 않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눈물이 났고, 말이 나오지 않던 입에서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선생님...” 이라는 말만 울음과 함께 나왔다 <18>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의 고민을 귀담아들어주고 자신과 눈높이를 맞추어 열린 대화에 임할 때 크게 감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시의적절한 충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매우 진지하고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원활한 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개방적·쌍방향적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점점 더 자신의 마음을 열고 교사와의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충고든 훈계든 교사의 조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좋은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방향에 관한 연구(Ghang, 2012)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장하고, 좋은 교사가 지녀야 할 교육 철학의 예로 학생의 말을 낮은 자세에서 따뜻하게 깊게 듣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여 본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반영적 경청과 공감적 수용, 개방적·쌍방향적 의사소통은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로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자발적으로 창출하게 하는 생산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교사의 자질로 기억하고 높이 평가하는 특질은 바로 좋은 대화 상대이자 상담자로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4. 관심과 배려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교사의 또 다른 인격적인 자질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보이고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온정적인 배려를 베풀고 세심한 개별 지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학업적인 진보를 달성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교사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발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는 학생들의 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생님도 내가 타악기 중엔 신입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중심으로 많이 가르쳐주셨다. ...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나만 따로 불러서 개인지도도 해주셨다.** <1>

선생님께서서는 바쁘실 텐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하나 없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수학공부를 가르쳐주셨다.** <4>

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선생님이 알아봐주시니,** 나는 그것을 알고 더 키울 수 있었다. ...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존재는 아닌 것 같다. ... **학생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것 또한 선생님의 도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 경험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 **나의 재능을 발견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 여태껏 그 길로 인도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야.** **나의 또 다른 내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해 주신 분이 선생님이야.** 얼마나 멋진가. 나는 이런 선생님들을 보아오면서 나의 꿈을 키워 나갔다. <7>

선생님과의 첫 만남!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셔서 **저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안이주셨어요.** 뭔가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많이 달랐지요. ... **왠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 선생님께서서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에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관심가져주시고 엄마처럼 하나하나 신경써주시고** 하시니까 선생님의 진심이 저희한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 요즘 우리들 중에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전학 오는 친구에게 환영의 문자 보내거나 가출한 친구에게 사랑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기 같은 것들은 '나' 가 아닌 '우리' 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가르친** 예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전학 온 친구는 금방 우리와 친해졌고, 가출한 친구는 다음날 학교에 나왔지요. <8>

가끔은 먼저 장난을 쳐주시기도 한다. ... 다른 반

이 되었다고 모른 척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 가끔은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서는 “요즘은 어떠냐?” 라고 물어봐주셔서 요즘의 상황을 이야기 해드리기도 한다. 다른 반이 되었다라고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선생님이 감사하다. <9>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선생님의 시간을 많이 빼주셨어요.** ...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나를 잊지 않은 선생님, 제가 낯선 곳에서 잘 생활하는지 늘 걱정하셨던 선생님. 그 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달려야 한다고 느꼈지요. <10>

선생님은 식사가 더딘 아이를 꾸중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손수 반찬을 올려주시며 식사를 도와주시고 계셨다. 피곤하실 법도 한데 **혼자 남은 아이를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직업을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반 **아이들의 가정환경은 물론이고, 식습관이나 성격 하나하나까지 모두 알고 계셨다.**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선생님의 노력**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꿈을 이루어 내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심지어 선생님께서 아직 까지도 나와 어릴 적 식습관이나 글씨체, 성격 등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 ... 선생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나의 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하나까지 바로 잡아주셨다.** 또 더 나은 문장을 쓰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시고 경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백일장이나 글쓰기 대회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더 나은 글을 쓰도록 은 힘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나도 모르게 문장력이나 구성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11>

그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지내오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먼저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제에게 말을 걸어 주셨어요. ... 그동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학교생활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의 그 말 한마디에 **선생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힘드신데 제가 좀 더 **친구들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마음 써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선생님이 저한테 배려해 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학교생활이었지만 **제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선생님이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3>

나의 담임선생님께서 한 번도 내게 쓴 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다. **다른 남자 아이들에게는 버럭버럭 소리를 잘도 지르셨지만, 나에게 꾸중을 하실 때에는 뭐랄까 좀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 선생님께서 반 **학생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그 학생의 성격에 맞게 대해주셨던 것이다.** ... 초등학교, 중학교 총 9년 동안 그 어떤 선생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다. ... ○ 선생님은 **나를 배려해주셨다.** 좀 여성스런 나의 성격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바꾸려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이다.** 그 이해와 노력의 덕분에 6학년 생활은 나의 삶에서 가장 즐거웠고 행복하였으며 또 가장 활기찼던 시간이 되었다. ... 사제관계도 여느 인간관계와 같이 어느 한 쪽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면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이다. <14>

2월 졸업 전까지 선생님께서서는 시간 되시는 대로 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셨다. ... 제자인 내가 먼 곳에서 힘들까 싶어 신경을 써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 선생님, 그 때는 철부지여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16>

앞 작은 반으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김밥과 음료수를 주셨다. 그러시곤 “아침 안 먹었는 거 다 알아 얼른 먹어 굶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겠지. 동정. 불쌍한 아이를 동정하는 선생님. 근데 **이건 동정이 아니다. 배려였다.** 또 울컥했다. 울면서 먹는 김밥. 맛있었다. 좋았다. 맛있어서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날 생각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좋았다. <18>

위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 중 한 사람인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해 자상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개인차를 무시하지 않으며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학급 전체를 대상

으로 하는 지도 외에 개별 학생에 대한 섬세한 배려로 맞춤형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은 교과목과 관련된 학업 신장은 물론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하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험은 곧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교사의 자질을 다룬 선행 연구(Ghang, 2012)에서도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개별적인 관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좋은 교사라면 학생 개인이 그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열정과 신념이 필요하며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이 활력 있게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살피 줄 수 있는 교사의 지도력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교사의 경우 가르치는 능력과 아울러 학생들의 개별적인 삶을 보살피고 그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능력과 태도 면에서도 유능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교사가 이 부분의 능력을 개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적인 문제 외에도 가족 해체의 문제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경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 교사의 민감한 관심과 적절한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을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되며,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그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각별한 관심, 애정, 배려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학생의 수기를 통해 영향력 있는 교사의 자질로 지목되고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시키고 있다.

5. 모범과 비전 제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수기를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학생에 의해 평가되고 있는 교사의 마지막 인격적 특성은 모범과 비전 제시이다. 즉, 학생들 앞에서 숭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이것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장차 이루고 싶은 꿈과 이상을 구체적으로 길러 나가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들의 인격적인 특성과 그 영향력이 잘 묘사되어 있는 학생들의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의 꿈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 된 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보답 드리고자 도와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근거**로서 충분한 것이다. 나의 영원한 선생님, **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4>

나의 ‘○ 담임선생님’ 은 물론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지만, 또 내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해주신** 분이셨다.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선생님께 누구보다 배우는 것이 많아졌다**. 요즘 우리가 지구온난화나 자연훼손, 정치, 사회에 대해 말하고 글쓰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 라는 뜻을 담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를 가르쳐주셨던 ‘○ 선생님’ 은 다르셨다. **남들보고 걸어 다니라고 하기 전에 선생님은 먼저 걸어 다니셨고, 차를 타지 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태양열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남들 보고 시키기 전에 전기코드 뽑기, 방불 끄기, 걸어 다니기 등을 몸소 실천했다**. ... 선생님께서는 자라나는 나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자연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몸소 실천을 하여 가르쳐주신** 나의 선생님입니다. ... 나에게 항상 기대감을 안겨주시고 **존경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선생님이 바로 나의 ‘○ 선생님’ 이셨다. <6>

일기장에 내 생활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 선생님께

서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셨다. ... 그때부터 내 꿈은 '초등학교 교사' 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학생과 멀지 않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사이의 사제시간이 참 좋게 느껴졌다. 선생님께서는 내 꿈을 잊지 않고 응원을 해 주시곤 했다. 아마 이 선생님 덕분에 나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꿈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나 싶다. ... 나는 이런 선생님들을 보아 오면서 나의 꿈을 키워 나갔다. ... 나에게 선생님은 정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렇게 글 쓰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선생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구나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다. <7>

제 꿈도 선생님처럼 수학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수행평가에 제 직업과 관련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닮고 싶은 분인 선생님을 소개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도 선생님처럼은 아마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제 가슴 속에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고 '이럴 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면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할 거예요. <8>

오랜 방황도 있었지만, 선생님 덕분에 저를 찾게 되었고 이제는 꿈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선생님처럼 학생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해해주는 교사가 될 거예요. 어느 한 분의 애정과 헌신이 저를 변화시켰듯이 저 역시 다른 학생을 감화시키는 교사가 될 거예요.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언가에 심취해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요! <10>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의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선생님의 노력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꿈을 이루어 내가 가르칠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11>

그 때 선생님께서 내게 “같이 동아리 해 볼 생각 없나?” 고 물어보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나는 주저 없이 ‘지금의 나’ 는 없을 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목적지는 있지만 그 곳에 닿는 방법을 알지 못해 헤매거나 또는 우물 안 개구리 마냥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혀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나는 생각해왔다. ‘나도 꼭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것’ 이라고. <12>

선생님은 앞으로는 되도록 우리들 앞에서 좀 더

많이, 또 활짝 웃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셨다. <14>

나에게 꿈이라는 나무의 씨앗을 심어주신 6학년 담임선생님인 ○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 ... 선생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 나의 꿈은 선생님 ...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께서 주셨던 꿈의 씨앗을 다른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는 나의 모습을 적었다.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그 꿈에 대하여 깊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선생님, 선생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 충고, 조언들은 거름삼아 2031년 2월 16일에는 큰 나무로 자라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꿈의 씨앗!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달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15>

특히 우리 반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많았고, 결손가정인 아이들도 많았었다.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방과 후 30분씩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학교 3학년이지만 친구들의 말도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혼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고무 친해질 수 있고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꼈었다. 나는 도와주는 아이들 중 한명으로, 그 당시 짝꿍이었던 지각하는 아이의 집에 등교 전 벨을 눌러주고 아침마다 수학문제 5개를 푸는 활동으로 옆에서 꼼꼼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 한 사소한 일이었지만, 사물함이나 책상서랍 정리를 도와주는 등 소외된 친구들과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였다. 선생님의 마음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16>

제자로서 나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꿈은 가치관과 교육관을 존경했고, 언젠가 내가 교사가 된다면 선생님과 같은 사랑이 충만한 교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교사,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아니 영원히 선생님과 만남을 이어가며 선생님이 주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당히 내가 교사가 되는 그날 선생님께 찾아가 말씀드릴 것이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사가 될 것을...” 저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 노력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7>

위에 인용한 학생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듯,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 모범적 ‘본을 보고’ ‘본을 반계’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즉, 이들은 바른 행실을 몸소 실천하며 출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준 교사를 통해 자기 인생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들의 수범적인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감동·감명을 느끼게 하고 자신도 그 본을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미래 자신의 삶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발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주요 특성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 동일시할 만한 인격적인 특성이었다. 그 구체적 특성은 곧 학생들을 존중, 이해, 배려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본받고 싶은 본보기 인물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는 전생애에 걸친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 중 성인 중기에 이르러 다음 세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아랫세대가 건전한 꿈과 소망을 잘 이뤄가도록 지원하는 윗세대의 책임 곧, 생산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교사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적·사회적·심리적 환경 중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정해진 교과 교육의 범위를 초월하여 오랜 동안 교실 안팎에서 교사로부터 전인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교사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는 교사들의 인격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대구광역시에서 주최한 사제

동행 미담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기를 통해 교사의 바람직한 인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8편의 수기에 모두 27명의 교사에 대한 회고가 수록돼 있었는데, 각 편의 내용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나 전인적 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준 것으로 지각된 교사의 특성을 추출하고 공통 요인을 범주화하고 명명하였다. 그 결과 온정과 수용, 격려와 지지, 대화와 소통, 존중과 배려, 그리고 모범과 비전 제시 등과 같은 자질이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선 부드럽고 따뜻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쉽게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케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학생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지하고 후원하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능한 인격적 특성의 교사에게서 돋보이는 또 다른 자질로서 관계맺음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학생마다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개별적 관심과 배려, 지도에 주력하는 모습, 모범적 행실을 통하여 본이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장차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모습이 있었다.

인격자의 특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Lee, 2009)에서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 뜻과 일치된 사람, 자신의 뜻 곧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옳은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갖고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교사의 인격적 특성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성숙한 인격의 특성 과도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성숙된 인격을 지닌 교사를 만났을 때 학생들이 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직접 체감하고 스스로도 인격적 성숙을 지향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교사의 인격적 성숙이 학생에게 미치는 교육

효과가 이처럼 큰 것은 참 교육의 부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의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도 다수로 나타났다 (National Youth Council & Korean youth Politics Institute, 2007). 이는 현대 교육이 지력 향상에만 편중된 채 인격의 핵심 요소인 정(情)과 의(意)의 균형적 함양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Lee, 1991).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자신의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도 인격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현행 교육과정 중 인격 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인격 교육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지표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그 실천 지침은 찾아보기 어렵다 (Kim & Joh, 2008). 인격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정치적 부산물이나 관념 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Park, 2007).

최근 교육에서 강조되는 ‘글로벌 인재교육’도 ‘인간존중 교육’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하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Rho, 2007).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나 요청에 비춰보더라도 인격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정규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격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인격 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물의 제시를 통하여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지니는 구체적 덕목을 학생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습득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토대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인격교육의 실천적인 접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적용 분야에 대한 제안과 이 분야의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여보도록 하겠다.

첫째,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격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을 다룬 연구(Chang & Chang, 2001)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중시하나 이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지향이라 지적하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교사 연수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사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지각된 교사의 인격 특질을 발달시키는 구체적 지침을 담은 내용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경우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지표를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 이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글쓰기를 인격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을 생산적으로 반추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글 속에는 자신의 인격적 성숙과 성장을 도와준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 이들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자아 성장의 인식,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결단 등과 같은 건설적·고무적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널쓰기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Won & Kang, 2007)도 글쓰기를 통해 반성적인 사고력이 유의하게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불안과 동요를 겪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문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격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사의 인격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양적·질적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교사의 특성을 통해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 부모, 교육전문가 대상의

한 연구(Sung, et al., 2009)에서는 이해와 존중, 애정, 긍정이, 초등학교 교사 대상의 한 연구(Kang, et al., 2006)는 공정, 열정, 헌신, 온정이 바람직한 자질로 나와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특성을 학생의 학년, 성적, 가정, 교우와 같은 관련변인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질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 교사, 부모, 교육 행정가 등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격의 발달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ang, H. K. & Chang, H. S.(2001). The Qualities of an Effective Teacher Recognized by Secondary Teacher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3(1), 37~62.
- Chun, D. H. · Kim, H. E. · Kim, K. E. · Lee, Y. S. · Jeon, C. W. · Lee, I. S. · Bae, E. Y. & Choi, M. Y.(2011). *Human behaviors & social environment*, Seoul:Changjisa.
- Daegu Metropolitan City(2011). *Memories of chalks and pencils*.
- Ghang, S. G.(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e of Teachers' Education Institute for Educating the Good Teacher,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44, 127~153.
- Hong, B. S. & Nam, M. A.(2007). *Adolescent welfare*, Seoul:Knowledge Community.
- Ju, D. B.(2009). Review of Researches in Concept, Measurement, Effect, and Influence Factor of Teacher Efficac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1(4), 489~498.
- Kang, Y. S. · Lee, M. A. & Jung, E. Y.(2006). Exploration of the Component Factors on Images of Good Elementary Teacher Based on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8(3), 283~292.
- Kim, B. S.(1991). *Social psychology of schools*, Seoul: Yangsuwon.
- Kim, J. H. & Joh, J. H.(2008). A Study on Educational Tasks for Korean Adolescents' Moral Character Development, *Journal of Humanities & Character Education* 2(2), 21~36.
- Kim, N. S. · Lee, O. B. · Jeong, I. H. · Ju, D. B. & Han, S. C.(2001). *Adolescent education*, Seoul: Hyungsul.
- Lee, J. I.(2009). A Man of Moral Character and Will, *Journal of Humanities & Character Education* 3(1), 31~49.
- Lee, K. H.(1991). *Character education*, Seoul: Sungwonsa.
- Nash, R.(1976). *Teacher expectations and pupil learning*, London:Routledge.
- National Youth Council & Korean Youth Politics Institution(2007). *Research on Korean youths' values*.
- Park, K. S.(2007). A Study of the Problems on Moral Character Education through Moral Subject Matter in Secondary School, *Journal of Humanities & Character Education* 1(1), 83~98.
- Rho, S. Y.(2007). Where is the Character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Humanities & Character Education* 1(1), 99~113.
- Shin, K. L. · Cho, M. O. · & Yang, J. H.(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Ewha Womans University.
- Sung, B. C. · Boo, J. Y. · Han, K. I. & Lee, K. H. (2009). Perception of Education Community about Teacher's Competency,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1(1), 78~95.
- Weber, R. P.(1990). *Basic content analysis* (2nd Ed). CA:Sage Publications.
- Won, M. K. & Kang, S. H.(2007). The Effect of Journal Writing on the Reflective Thinking of Pre-service Teachers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9(3), 429~440.

-
- 논문접수일 : 2012년 11월 29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2월 20일
2차 - 2014년 0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13일